

## 송 지사, 태풍피해 최소화 분주

### 민선7기 첫날, 태풍 '쁘라삐룬' 대비 재난안전대책 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특별관리 피해 발생 않도록 철저"

전북도 송하진 지사가 민선7기 취임 첫날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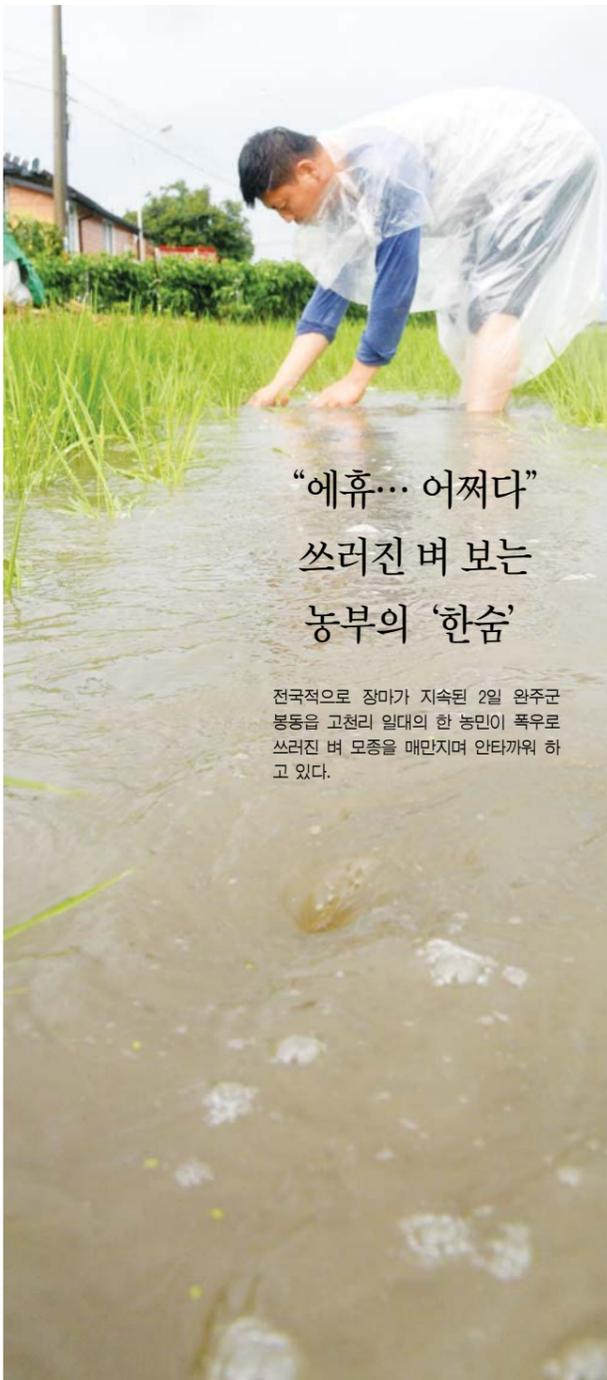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일 오전 10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했다.

이날 재난안전대책 회의전 민선7기 제35대 도지사 취임선서와 함께 도정 운영방향을 간단하게 밝힌 뒤 곧바로 재난안전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송 지사는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도내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명 피해 우려지역과 재해취약지역을 특별히 관리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자연재난 대응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자연재난 대응의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주택 피해 등을 최소화하여 도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및 대비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 지사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실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재해위험지구 현장을 방문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사면붕괴 및 낙석발생 위험이 많은 도로이므로 통행차량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까지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에휴... 어찌다" 쓰러진 벼 보는 농부의 '한숨'

전국적으로 장마가 지속된 2일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일대의 한 농민이 폭우로 쓰러진 벼 모종을 매만지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 송 지사 "천년 전북 대도약에 신명 바칠 것"

민선7기 업무에 본격 돌입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일 "자랑스러운 천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믿을 수 있는 행정, 안정 속에서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도정을 만들겠다"며 "도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롯이 도민에게 있는만큼 안전과 복지, 환경, 균형 등 어느 하나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을 어깨에 지고 전북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며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의 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지난 4년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으로 실현해 온 전북민의 발전전략을 더 구체적인 정책들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며 "정책적 오차나 오류가 발견되면 주저하지 않고 겸허히 인정,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 전북발전의 백년대계를 그려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의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전북발전을 이뤄가겠다"며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전북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사업들을 도민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취임식을 취소했다. 대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재해위험지구 현장을 방문했다. /김진성 기자

## "민선 7기 지방자치 개막 국민 삶 바꾸는 자치 기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선 7기 지방자치로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국민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이뤄지기를 국민들께서 바라는 데 개헌이 무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이 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 박길연 신임 하림 대표이사 공식 업무 돌입

이문용 전 대표이사, 상임고문으로 자리 옮겨

(주)하림은 지난달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박길연 (56) 전 한강씨엠 대표를 선임했다. 박 신임 대표이사는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주주총회 특징은 김홍국,박길연,윤운석 대표 등 각자 대표체제로 분담 운영기로 한 것. 박 대표이사는 축산전문인으로서 서울대 축산학과 졸업 후 지난 1985년 천하제일사료를 거쳐 (주)올품 영업본부장·(주)하림 기획조정실장·(주)한강씨엠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한편 이문용 전 하림 대표이사는 하림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익산=우병희 기자



#### 매일 INDEX

4면 - 김승수 전주시장 첫 행보

16면 - '유진섭호' 정읍시정 출범



한국체험 1번지 전라북도

# 전북투어패스

## 전북관광, 카드 하나면 OK!

이제, 카드 하나로 저렴하고 편리하게-전라북도를 더욱 즐겁게 여행하세요!

www.jbtourpass.kr

J B TOUR PASS

- 관광지 무료입장
- 음식점 특별할인
- 숙소할인, 무료주차
- 시내버스 자유이용

전북투어패스 관광형 1일권 (8,300원)	전북투어패스 교통형 1일권 (12,900원)
전북투어패스 관광형 2일권 (13,900원)	전북투어패스 교통형 2일권 (23,400원)
전북투어패스 관광형 3일권 (19,900원)	전북투어패스 교통형 3일권 (33,900원)
전북투어패스 관광형 한우아름전 (4,200원)	전북투어패스 교통형 한우아름전 (8,900원)